

나이지리아의 한국인 농장

노 영 한

본지 편집국장

82년 8월 대통령이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후에 아프리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인들이 다녀왔고 양계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나이지리아 진출문제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양계분야는 나이지리아에서 인기업종 중의 하나이므로 더욱 매력적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매력있는 곳에 미국, 일본, EC의 여러 나라들은 왜 진출하지 않는가? 이곳에 한국인 양계기술자들은 어떻게 진출하였고 성공하였는가를 필자가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직접 현지에서 보고 느낀 점을 소개하여 앞으로 이곳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

15세기말 포르투갈인에 의해 처음 알려진 뒤 1861년부터 꼭 100년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아오다 1960년 독립하였다. 250여 종족이 살고 있으며 공용어는 영어를 사용하나 지금도 영어외에 Hausa, Yoruba, Ibo의 3개 지방언어로 TV방송을 하고 있다.

허약한 경제기반으로 66~79년까지 3차례의 군사혁명을 겪었고, 67년부터 71년까지는 너

무도 유명한 비아프라지역의 내전에 시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4.2배나 되는 923,768km²의 넓은 국토에 인구는 9,600만명으로 세계 9위에 이르고 있다. 해안선을 낀 Niger 강 유역의 델타지역은 초목이 무성한 평원과 구릉지역이며 북쪽은 광활하고 건조한 초원이다.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이며 고온다습하나 전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교는 50%가 회교도이며 약 35%의 기독교도들과 불활론자(物活論者: Animists) 등이다.

1979년 13년의 군정종식 후 선거에 의해 출범한 현 샤가리대통령은 집권초부터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친서방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임기 4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연임되었다. (1회 연임가능) 석유생산은 세계 6위이고 (OPEC 회원국) 연간 250억\$을 수출하며, 국민 1인당 GNP는 1,100\$로 아프리카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60%가 농민이나 생산기반이 취약해 연간 260만t의 외곡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교포는 200여명이 있으며, 종합상사들이 현지에 나가 있고 건설업체도 진출해 있다.

철도와 도로(1/6정도가 포장)와 국내 항공망이 있으며 (별표 도시) 수도 라고스가 인구 11,000,000명, Ibadan 847,000명 (열대농업연구소에 한국인 학자가 있다), Ogbomosho 432,000



명, Kano 400,000 명, Oshogho(282,000 명), Port Harcourt 242,000 명, Zaria 224,000 명, Kaduna 202,000 명이다.

전기는 220볼트를 사용하고 시간은 GMT에 1시간을 더하면 된다. 암시세와 공정환율의 차이가 크고 풍토병으로 말라리아가 유명하다.

네후라데이 (Nefraday) LTD

네후라데이농장은 라고스에서 비행기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이로린 (ILORIN)시 교외에 위치하고 있다. (KM, 20 ILORIN-Ogbomosho Rd. P. O Box 152 ILORIN Kwara state Nigeria)

농장총면적은 5천 에이커(약 15,430,000 평)로 농장내에는 아름다운 인공 및 자연호수가 8개나 있다. 34명의 사무실과 231명의 사료공장 65명의 정비공장과 6,100평의 계사(19동)와 100평의 부화실 외에 한국인 숙소로 냉방시설이 완비되고 온수, 냉수가 나오는 32평의 빌라가 있다.

현재 산란계 10만수, 종계 3만수까지 성장하였으며, 부화업을 더욱 확장하여 이곳 양계장에 우수한 초생추를 공급하여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농민소득 증대에 힘쓸 계획으로 있다.

이 농장에 현재 한국 양계인 5명과 표고버섯 기술자 1명이 작년 12월 23일부터 금년 3월 5일 사이에 이곳에 진출하여 있다. 이 농장

은 그동안 영국인, 이태리인, 인도인 기술자를 고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농장운영을 맡아 성공함으로써 나이지리아에서 양계는 한국기술자라야 한다는 신화를 만들게 되었다.

한국기술자들이 진출하기까지

현지의 유력인사인 농장주가 그동안 실패를 거듭하여 폐허화 되어가는 농장 때문에 고민하여 오던 중 나이지리아 교민회 이봉덕 회장을 만나 마지막으로 한국의 양계기술자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 지원은 나이지리아의 수산·제분분야에 진출해서 현지사정에 밝은 용영물산(주) (대표 백영수)이 담당하고 기술적인 제반문제는 대한양계협회에서 협조하였다.

양계의 천국인가?

우리는 나이지리아가 세계에서 식료품가격이 가장 비싸고 양계의 경우 계란 1개의 농장출하가격이 125원이나 하며 그것도 없어 못파니 그곳에 가서 양계만 하면 메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많은 양계장들이 실패하는 것은 kg당 445원이나 하는 배합사료의 품질이 불량하고 수입도 제한되어 있어 우수한 병아리를 구입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3~4월은 40℃의 고온다습이 계속되며 전형적인 열대성기후는 우리나라의 삼복(三伏)더위를 방불케 하여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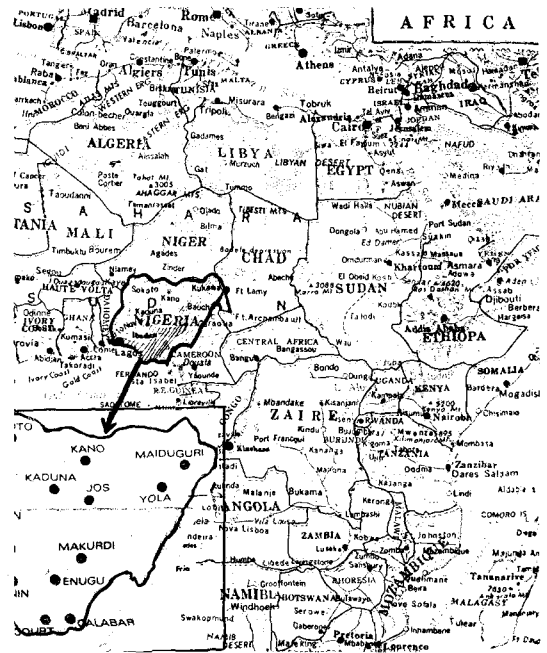
· 각종 질병과 Hamattern이라는 우리나라의 황사현상과 같이 사하라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마치 안개길 날씨와 같다. 더우기 이곳 주민들은 열대지방 특유의 기질이 있어 작업의 능률이 크게 떨어지므로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곳의 외국인 고용제도도 까다로워서 취업

허가(E.Q)를 얻어내기가 극히 어려우며 나이제리아인이 할 수 없는 특수기술분야에 한하여 EQ가 나오며, 그것도 한사람 허가에 현지인 20명 이상을 채용해서 현지인을 훈련시켜야 하고,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50%만을 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가 라고스의 한국대사관 임 동원 대사를 만났을 때도 한국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도 EQ를 얻어내는 일이며 사우디와 달라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기간을 맞출 수가 없으며, Nefraday 농장의 경우 바로 EQ가 나온 것은 이곳 교민회 이 봉덕회장의 놀라운 수완때문이라고 귀뜸하여 주었다. 이 봉덕회장은 이곳 고위층인사들을 친한파가 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민간외교관으로(이곳은 남북동시수교국임) 민간외교 및 수출유공으로 작년에는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도 있다.

이곳에서 어려운 점의 또 하나는 전기통신 수송사정이 극히 나쁘고 은행을 비롯한 관련기관과의 협조도 어렵다. 현찰을 은행에 입금시키고 오는데 4시간이 소요되는 정도이며 공구 몇가지를 구입하려면 거의 하루를 보내야 한다.



여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마치 우리나라의 합작회사들이 한두명의 외국인이 와서 경영하는 것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다.

이곳 농장의 총책임자로 있는 이순홍씨(General manager)가 농장경영을 바로 인수받지 않고 한국기술팀 모두가 도착한 후에(5명) 인수 받은 것은 극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는 과거 월남에서 교민회장을 역임하였고 공산월맹 치하에서 8년간 철수하지 못한 한국인교포 250여명(외교관 3명 포함)과 생활을 함께 하며 이들이 무사히 철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작년 민간인으로 최고의 훈장을 받은(기회 국내일간지에 연재보도) 스케일이 크고 외교능력이 출중한 인사이다. 농장인수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원만히 처리하고 현재도 농장에는 영국, 이태리, 인도인 기술자가 있어 이들을 부하직원으로 적절히 통솔하며,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한국기술자의 우수성을 시인하게 하고 인근 관공서는 물론 지역사회에 불과 7개월만에 한국인의 근면성과 높은 실력을 홍보하여 필자가 차에서 내리는 곳마다 흑인들이 코리아, 코리아 하고 외칠 때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기술자들이 대인관계에 자칫 폐쇄적이

네후라데이농장의 성공비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현지에서의 자금 및 행정면에서의 지원이 거의 완벽한 점이다. 이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나이제리아의 경우에는 절대적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출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 봉덕회장은 이미 이곳에서 다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그 일부를 농장에 투자하여 목전의 이익보다도 먼 장래를 위하여 한국의 국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농장의 작업환경에 거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고 있다.

두번째로 이곳 농장에 근무하는 경영 및 기술진의 기술수준도 높지만 인화단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한두명이 진출하여서 현지 종업원을 채용하

거나 소극적이어서 외국생활에서 손해보기 쉬운 것을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외교로 국외선양까지 하는 것이 된다.

기술진도 김진(전대주사료)씨를 비롯하여 푸리나농장에서 10년 이상씩 현장경험을 한 김기영, 이한창기사들의 피나는 노력은 외국인들이 실패한 농장을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24시간 근무하여 300%의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농장에 그 많던 쥐들도 없었고(쥐 한마리가 보통 1kg을 넘는 대형종이다) 주위환경부터가 깨끗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곳 사료공장에서도 많은 거래선중 가장 산란율과 생존율이 높아 대외 선전용으로 한국인농장을 예로 들고 있으며, 그곳에서 필자가 듣기로는 나이지리아의 양계장중에서 아마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장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칭찬들이 대단하였다.

서울의 지원회사인 용영물산에서도 그곳에서 혹시 식사에 어려움이 있을까 하여 쌀, 고추장, 된장을 비롯하여 두부, 참기름, 라면, 깻잎까지 60여종의 주식 및 부식 1년분을 보내서 식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고, 더우기 현지 종합병원과 계약으로 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제가 없이는 풍토병이 있는 열대지방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사람의 힘이 합해져서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가는 농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며 결코 운이 좋아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곳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에게

현재 나이지리아의 많은사람들이 한국인과 양계장을 경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간 많은 서신들이 있었고 직접 서울에 다녀간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 앞으로도 Nefraday 농장이 발전하는 것에 비례하여 합작 또는 기술자 파견등의 형태로 더욱 많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어진다.

그러나 충분한 현지실정을 모르고 진출하게 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본인의 손실은 물론이려니와 기왕에 쌓아올린 한국인농장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국위손상으로 그곳 200여 교포들이 가슴을 찢고 다닐 수 없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남북 동시수교국이란 점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또 성공한다 하여도 현재 그곳 제도가 송금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 전에 정부나 협회와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겠다.

라고스의 한국대사관에서 임동원대사도 필자에게 귀국하면 이곳에 진출하려는 업체에게 이곳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이 이곳에 진출하였다가 당황하였는가를 알수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이지만 선진국들이 진출하지 아니하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더욱 많은 연구조사와 신중을 필요로 한다. 한국인농장의 성공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소개되었고, 부화기를 비롯한 양계기계기구를 한국에서 수입하였고 수입하기를 희망하며 양계를 하고 있거나 하기를 원하는 현지인들을 '친한인사'로 만드는 민간외교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